

# 선의의 '이 vs 이'...12연승 열매

(이고은) (이윤정) (시즌 중반)

주전세터 이고은 기대 못 미치자 이윤정 투입...초반 8연승 이끌며 이고은 월업존서 좌절 대신 배움 이윤정 고비 오자 다시 선발 우뚝 신뢰하며 경쟁...팀 2위 이끌어

**도드람 V-LEAGUE** 도로공사는 16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KGC인삼공사와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 승리를 거두고 18승5패, 승점 51을 기록했다. 선두 현대건설(22승1패·승점 65)을 따라잡기는 여전히 버겁지만, 3위 GS칼텍스에는 승점 5점 앞선 2위다.

이날 가장 눈에 띈 도로공사의 변화는 선발 세터였다. 이고은(27)이 14경기 만에 선발로 3세트를 모두 뛰었다. 시즌 개막 때만 해도 이고은이 주전 세터였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위해 충분히 선수생활 연장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대주 세터 이윤정이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하자 결단을 내렸다.

오래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세터의 공백에 공격수들은 버거워했다. 코치로 변신한 베테랑(이효희)과 상대 없는 경쟁을 벌이던 이고은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도로공사는 중앙을 잘 활용하는 이효희의 플레이 패턴과 분배에 특화된 팀이었는데, 이고은의 패스는 달랐다. 좌우로 빠르게 쏘는 패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이고은은 어렵게 한 시즌을 보냈다.

고민하던 도로공사는 실업배구에서



도로공사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볼 배구' 진흥이 유력한 상황이다. 세터 이고은(왼쪽)-이윤정의 플레톤 시스템이 시즌 중반 12연승으로 2위를 굳히는 데 적잖게 기여한 결과다. 스포츠동아DB·KOVO

경험을 쌓은 이윤정(25)을 신인 지명으로 영입했다. 당초 3라운드에 지명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실업팀에서보다 연봉이 줄어 고심하던 이윤정에게 김종민 감독은 희망이라는 마술을 불어넣었다. 이윤정은 어렵사리 프로행을 결정했다. 도

로공사는 2라운드 2순위로 뽑아 연봉을 높여줬다.

이고은이 주전 세터, 이윤정이 2번째 세터로 2021~2022시즌을 시작했다. 2라운드 현대건설전까지 8경기에서 선발 세터 이고은은 4승4패를 기록했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팀에는 성에 차지 않는 결과였다. 탄탄한 수비, 다양한 공격이 장점인 도로공사 특유의 배구가 사라지고 단조로운 공격만 되풀이됐다. 김 감독은 중앙을 활용하면서 낮고 빠른 패스로 좌우 날개공격을 살려주는 배구를 원했다. 이고은은 혼란 때 잘하다가도 막상 경기에만 나서면 그 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1일 인삼공사전에서 선발 세터로 이윤정을 투입했다. 기회를 잡은 이윤정에게는 운도 따랐다. 팀이 연승을 달렸다. 사령탑이 변화를 줄 이유가 없었다. 초반 8연승까지는 이윤정이 플레톤을 소화했다. 이후 이고은과 번갈아 세트를 나눠가며 두 세터가 12연승을 합작했다. 월업존의 이고은은 좌절하지 않았다. 경쟁자가 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격수에게 어떤 높이와 스피드로 쏘줘야 하는지 눈으로 익혔다.

거침없이 잘나가던 이윤정에게도 고비가 찾아왔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감독의 표현처럼 생각이 많아졌다. 결국 김 감독은 16일 인삼공사전에서 이고은을 다시 선발로 투입했다. 세터 2명이 경쟁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톤 시스템은 이제 도로공사 세터진의 옵션이 됐다.

이런 경쟁체제가 정착되려면 선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사령탑의 역할이 중요한 지점이다. 당연히 상호신뢰가 전제 조건이다. 도로공사는 경쟁과 공존의 긍정적 효과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종민 기자 marco@donga.com

## '동양인 첫 마스터스 우승' 썼던 마쓰야마 소니오피 연장전 극적 이글로 역전우승

지난해 '동양인 최초 마스터스 우승'이란 역사를 썼던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연장전 극적인 이글을 앞세워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승 고지에 올랐다.



마쓰야마 히데키

마쓰야마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오피(총상금 750만 달러·89억2500만 원)에서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135만 달러(16억 원)를 손에 넣었다.

러셀 헨리(미국)에 2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마쓰야마는 7언더파 63타를 쳐 5타를 줄인 헨리와 함께 23언더파 257타로 동타를 이뤘다. 18번(파5) 홀에서 열린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서 두 번째 샷을 홀친 2m 부근에 떨어진 뒤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 우승했던 마쓰야마는 1983년 아오키 이사오에 이어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일본 그룹 소니가 후원하는 대회 챔피언에 오르며 통산 8승을 기록했다.

4라운드 9번 홀까지 마쓰야마에 5타 차까지 앞섰던 헨리는 후반 연이은 부진에 이어 연장에서도 보기에 그치면서 2013년 이후 9년 만의 패권 탈환에 실패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아마하골프 '리믹스 VD40' 무료 체험 실시

아마하골프 국내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골프는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 '리믹스 원정대'의 시타 제품 라인업에 신제품 리믹스(RMX) VD40 아이언과 V D 아이언을 포함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마하 '리믹스 VD40'

매년 1만 명 가까운 골퍼가 참여하며 대한민국 대표 시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리믹스 원정대'는 기존 리믹스 220과 120 드라이버, 7번 아이언, 3번과 5번 우드 그리고 4번과 5번 유틸리티에 이어 리믹스 VD40 아이언과 상급자용 VD 아이언을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VD는 '벡터 디렉션(Vector Direction)'의 약자로 이번 리믹스 신제품의 모든 라인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에서도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듯 VD의 모든 클럽은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춰 제작된 제품이다. 신제품 VD40 아이언과 VD 아이언을 리믹스 원정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택배비만 지불하고 20일간 체험해볼 수 있다. 오리엔트골프는 사전 체험은 물론 구매 후 3주 이내에 단순 번심까지도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품질 보증 판매'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정재원 월드컵서 큰 공부...베이징서 일 낼 것"

제갈성렬 감독 "기술 습득력 탁월" 이승훈 제치고 매스스타트 기대주



정재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만 17세의 나이로 올림픽무대를 밟았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차세대 주자 정재원(21·의정부시청)은 이제 조연이 아닌 주역으로 올라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2월 4일 개막할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강력한 메달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정재원은 4년 전 평창에서 이승훈(IH

Q. 김민석(성남시청)과 함께 남자 팀추월 은메달을 합작했고, 매스스타트에선 선배 이승훈의 금메달을 도왔다. 리비오 웬어(스위스) 등의 견제를 온 몸으로 막아내는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 뒤에도 페이스가 꺾이지 않았다. 특히 2020년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

드컵 파이널 남자 매스스타트에선 조이 맨티아(미국)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환경이 위축된 지금은 오히려 선배 이승훈을 제치고 매스스타트 메달 기대주로 떠올랐다. 올 시즌에도 월드컵 3차 대회 4위, 4차 대회 6위에 올랐다. 14일 막을 내린 제76회 전국남녀종합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선 500m와 1500m, 5000m, 1만m의 4개 종목을 석권했다.

소속팀 사령탑인 의정부시청 제갈성렬 감독(SBS 해설위원) 역시 정재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재원이) 올 시즌 2차례 월드컵에서 최근의 흐름을

공부했다는 점이 큰 약이 됐을 것"이라며 "기량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떤 전문가든 정재원을 입상 후보로 분류할 것이다. 그만큼 실력은 입증됐다. 이제는 변수에 쉼스 중계 대처하며 타이밍을 잃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준비하고 있다"며 "(정)재원은 스케이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어린 나이에 스케이팅의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매우 탁월하다. 많은 경험을 하며 더 기량이 늘겠지만, 지금도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다. 앞으로 정말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sports2i 스포츠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특실

#### 경기결과

##### 프로배구 <17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23	22	1	65	2034	1712	10승
2	도로공사	23	18	5	51	1966	1756	2승
3	GS칼텍스	23	15	8	46	1880	1717	4승
4	인삼공사	23	12	11	37	1807	1777	4패
5	한국생명	23	8	15	25	1882	1971	2패
6	IBK기업은행	22	4	18	11	1650	1888	1승
7	페퍼저축은행	23	1	22	5	1547	1945	17패

#####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23	14	9	43	2052	1914	1승
2	KB손해보험	23	12	11	41	2162	2094	1패
3	우리카드	23	11	12	37	1962	1899	1패
4	한국전력	23	12	11	33	1955	1972	1승
5	현대캐피탈	23	11	12	32	1959	2021	2승
6	OK금융그룹	22	11	11	28	1934	1987	1승
7	삼성화재	23	9	14	26	1933	2070	1패

##### 프로골프 <17일>

•PGA TOP10

소니오피 최종라운드

① 마쓰야마(일본)	-23	② 헨리(미국)	-23	③ 키스너(미국)	-19
④ 파워(아일랜드)	-19	⑤ 톰슨(미국)	-18	⑥ 클로버(미국)	-18
⑦ 마텔(미국)	-17	⑧ 녹스(스코틀랜드)	-17	⑨ 쿠치(미국)	-17
⑩ 스벤센(캐나다)	-17	⑪ 이경훈(한국)	-8	⑫ 김사우(한국)	-7

#### 해외축구 <17일>

#####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1 맨체스터시티	22	56	18	2	2	① 실라	리버풀 16
2 리버풀	21	45	13	2	6	② 조타	리버풀 10
3 첼시	22	43	12	3	7	③ 버디	레스터시티 9
4 웨스트햄	22	37	11	7	4	④ 마네	리버풀 8
5 아스널	20	35	11	7	2	⑤ 보나벤투르	왓포드 8
6 토트넘	18	33	10	5	3	⑥ 손흥민	토트넘 8
7 맨체스터Utd.	20	32	9	6	5	⑦ 스미스 로우	아스널 8
8 울버햄튼	20	31	9	7	4	⑧ 안토니오	웨스트햄 8
9 브라이튼	20	28	6	4	10	⑨ 허피나	리즈 8
10 레스터시티	18	25	7	7	4	⑩ 호날두	맨체스터Utd. 8
11 크리스탈팰리스	21	24	5	7	9	⑪ 겐라거	크리스탈팰리스 7
12 사우샘프턴	21	24	5	7	9	⑫ 마운트	첼시 7
13 애스턴빌라	20	23	7	11	2	⑬ 무파이	브라이튼 7
14 브렌트포드	21	23	6	10	5	⑭ 스티븐	맨체스터시티 7
15 리즈	20	22	5	8	7	⑮ 실바	맨체스터시티 7
16 에버턴	19	19	5	10	4	⑯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7
17 왓포드	19	14	4	13	2	⑰ 데 브루인	맨체스터시티 6
18 노리치시티	21	13	3	14	4	⑱ 마레즈	맨체스터시티 6
19 뉴캐슬	20	12	1	10	9	⑳ 보벤	웨스트햄 6
20 버니	17	11	1	8	8	㉑ 사카	아스널 6

#####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리버풀 3 - 0 브렌트포드	리즈 3 - 2 웨스트햄
-----------------	---------------

##### •르상피오나 경기결과

AS모나코 4 - 0 클레르몽	로리앙 0 - 0 앙제
마르세유 1 - 1 밀	스트라스부르 3 - 1 몽펠리에
스타드렌 6 - 0 보르도	메스 1 - 0 스타드드랭스
올랭피크리옹 1 - 0 트루아	

#### NBA <17일>

##### •경기결과

유타 125 - 102 덴버	휴스턴 118 - 112 새크라멘토
피닉스 135 - 108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119 - 99 골든스테이트

##### NHL <17일>

##### •경기결과

밴쿠버 4 - 2 워싱턴
---------------

##### 아마추어 경기결과 <17일>

- 축구
  - 2021-2022 FK리그(단양국민체육센터)
  - 슈퍼리그=고양볼스 8-4 노원FS, 예스구미 4-1 전주매그
- 농구
  - 2021-2022 KBL D리그 1차(이천 LG 챔피언스파크)
  - 상무 88-75 DB
- 테니스
  - 2022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호주 멜버른)
  - 남자 단식 본선 1회전=권순우(한국) 3-2 루네(덴마크)

#### 오늘의 토로 <18일>

##### •농구토로 스페셜N 12회차 대항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출발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1.18(화) 10:30	멜리메버 vs 오콜런더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
2	01.18(화) 10:30	샌안토니오 vs 피닉스	AT&T센터
3	01.18(화) 12:30	LA레이커 vs 유타저츠	크립토닷컴아레나

#### 경기예고

##### 프로농구 <18일>

•2021-2022 KGC 평안장 남자프로농구

인삼공사	<안양실내>	LG
------	--------	----

오후7시, SPOTV2

##### 프로배구 <18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페퍼스타디움>	IBK기업은행
--------	----------	---------

오후7시, SBS스포츠

#####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	<대전충무>	OK금융그룹
------	--------	--------

오후7시, KBSN스포츠

##### 아마추어 경기예고 <18일>

- 농구
  - 2021-2022 KBL D리그 1차(이천 LG 챔피언스파크)
  - DB-현대모비스(오후2시), 가스공사-상무(오후4시)
- 탁구
  - 제 75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충북 제천체육관, 오전9시30분)
- 스키
  - 제 52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용평리조트, 알펜시아)